<h1>나 혼자만 레벨업-32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g809a4c9b5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2화</p>  
<p>4. B급 강태식</p>  
<p>강태식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.</p>  
<p>B급에서도 속도로는 져 본 적 없는 자신과 대등한 움직임을 보이는 놈이 방금 자신을 E급 헌터라고 소개했다.</p>  
<p>'이 자식이 누굴 놀리나?'</p>  
<p>강태식은 뿌득 이를 갈았다.</p>  
<p>'아니, 가만...'</p>  
<p>그런데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.</p>  
<p>'진짜 상급 헌터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?'</p>  
<p>협회의 말단 헌터들 일이란 게 뻔하다.</p>  
<p>길드나 개인이 돈 안 된다고 포기한 게이트들을 처리하는 게 주 업무다.</p>  
<p>다른 헌터들에 비하면 수입이 형편없고, 헌터들 사이에서 인정받기도 힘들다.</p>  
<p>놈은 아마 E등급이 맞을 거다.</p>  
<p>다만 실력이 그 이상일 뿐.</p>  
<p>'그렇다고 부정 등록자가 협회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을 테고.'</p>  
<p>강태식은 결국 유일한 결론에 도달했다.</p>  
<p>'...각성 후 각성.'</p>  
<p>그러고 보니 얼마 전 이 근처 어딘가에서 각성 후 각성 의심자가 나왔다고 협회 상부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었다.</p>  
<p>'분명 협회 소속 헌터라고 했었지...'</p>  
<p>이름을 외워 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.</p>  
<p>오래되지 않은 일이니 놈이 재등록을 미루고 있었다면 아직 E등급을 유지한 채 협회 일을 돕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.</p>  
<p>하필 이런 날 놈과 마주칠 줄이야.</p>  
<p>오늘 레이드에 참여하는 헌터들의 목록을 꼼꼼히 체크했지만 놈의 존재를 간과하고 말았다.</p>  
<p>'운도 지지리 없군.'</p>  
<p>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'이러면 추가금을 더 받아야겠는데...'</p>  
<p>강태식은 며칠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혀끝으로 마른 입술을 축였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며칠 전.</p>  
<p>협회 본부 근처의 카페.</p>  
<p>강태식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.</p>  
<p>"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?"</p>  
<p>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많이 수척해 보였다.</p>  
<p>'무슨 실업 사장이라고 했던가?'</p>  
<p>분명 초면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연이어 걸려오는 남자의 간곡한 전화에 결국 강태식이 잠시 시간을 내주기로 했다.</p>  
<p>남자는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.</p>  
<p>"던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."</p>  
<p>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강태식은 다시 한 번 물어야 했다.</p>  
<p>"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"</p>  
<p>"여기 제가 모은 돈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."</p>  
<p>남자는 다짜고짜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.</p>  
<p>강태식은 남자와 통장을 번갈아 보다 통장을 확인해 보았다.</p>  
<p>안에는 2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었다.</p>  
<p>"이걸 왜 제게?"</p>  
<p>강태식이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자, 남자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했다.</p>  
<p>"헌터님께서 맡고 계신 죄수들 중 제 딸을 욕보인 놈이 있습니다. 그 일로 딸애는 목을 매달았고, 애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지요."</p>  
<p>남자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.</p>  
<p>"그런 짓을 한 놈이 몇 년 뒤에 멀쩡하게 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니... 제가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?"</p>  
<p>다시 고개를 든 남자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.</p>  
<p>"이 정도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."</p>  
<p>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제발 부탁드립니다, 헌터님!"</p>  
<p>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내려앉았다.</p>  
<p>강태식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깊은 고민에 잠겼다.</p>  
<p>그러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제가 왜 헌터 협회의 감시과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?"</p>  
<p>"예?"</p>  
<p>남자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강태식의 설명이 이어졌다.</p>  
<p>"B급 헌터 정도 되면 상급 헌터로 분류되어 대형 길드에도 종종 러브콜을 받습니다. 그런데 제가 왜 박봉을 받으며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?"</p>  
<p>"모... 모르겠습니다."</p>  
<p>강태식은 입꼬리를 올렸다.</p>  
<p>"전 괴물 같은 것보다 사람과 싸우는 게 훨씬 즐겁거든요."</p>  
<p>그런 의미에서 강태식에게 감시과는 천직이나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합법적으로 헌터들을 팰 수 있는 자리니까.</p>  
<p>그러다 가끔 피치 못하게 죽이는 경우도 있고.</p>  
<p>'피치 못하게... 라.'</p>  
<p>강태식은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말했다.</p>  
<p>"말씀하신 벌레를 밟아 죽이는 거야 제게는 일도 아닙니다. 하지만 던전 안에는 벌레들 말고 다른 헌터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. 제 눈에는 벌레로 보입니다만, 그 사람들 눈에도 그것들이 벌레로 보일까요?"</p>  
<p>강태식의 부정적인 어조에 남자는 실망스런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겨우 딸아이의 복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.</p>  
<p>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.</p>  
<p>그러나 강태식은 남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뗐다.</p>  
<p>"이 돈에다 다른 헌터들 처리 비용까지 10억 더. 가능하시겠습니까?"</p>  
<p>\*\*\*</p>  
<p>하지만 그 다른 헌터들 속에 재각성 헌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30억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았다.</p>  
<p>목숨이 달린 문제니 말이다.</p>  
<p>자칭 E급 헌터는 지금도 예리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다.</p>  
<p>빈틈을 보이면 언제라도 덤벼들 기세였다.</p>  
<p>강태식은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'만만한 상대가 아니다.'</p>  
<p>이길 자신은 있었다.</p>  
<p>각성자가 되기 전에도 일대일 싸움에선 거의 져 본적이 없었던 강태식이었다.</p>  
<p>그러나 이긴다고 해도 쉬운 승리는 아닐 터.</p>  
<p>이쯤에서 계획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.</p>  
<p>마침 E급 헌터가 물어 왔다.</p>  
<p>"그 죄수들... 왜 죽였어?"</p>  
<p>"그놈들에게 강간당한 여자애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더군. 놈들은 죽어 마땅한 짐승들이었다. 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짐승들을 처분했을 뿐이고."</p>  
<p>E급 헌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.</p>  
<p>어쩌면 대화가 통할지도 몰랐다.</p>  
<p>강태식은 본격적으로 회유를 시작했다.</p>  
<p>"일이 이렇게 됐지만 너희를 해치고 싶지는 않다. 오늘 일을 모른 척 해주지 않겠나? 약속만 해 준다면 나도 더 이상은 너희에게 손대지 않겠다."</p>  
<p>물론 화근을 남겨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그래서 강태식은 생각했다.</p>  
<p>정면 대결은 다칠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여기를 벗어난 다음, 나중에 적절한 때에 기회를 봐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 늦지 않다고.</p>  
<p>그러나 E급 헌터가 코웃음 쳤다.</p>  
<p>"그런 말은 손을 대기 전에 했었어야지. 기습이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?"</p>  
<p>틀린 말은 아니었다.</p>  
<p>강태식도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.</p>  
<p>'결국 그렇게 나온다 이건가.'</p>  
<p>그렇다면 이쪽도 전력을 다하는 수밖에.</p>  
<p>강태식의 눈빛이 살벌해졌다.</p>  
<p>날카로운 시선이 E급 헌터를 위아래로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.</p>  
<p>강태식의 미간이 잠깐 꿈틀거렸다.</p>  
<p>'칼은 어디서 나왔지?'</p>  
<p>언젠가부터 E급 헌터 손에 단검이 들려 있었다.</p>  
<p>'뭐... 상관없나?'</p>  
<p>무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</p>  
<p>중요한 건 무엇을 들고 있느냐다.</p>  
<p>강태식은 짧은 분석을 끝냈다.</p>  
<p>빠른 움직임에 단검을 무기로 쓰는 클래스.</p>  
<p>상대는 초근접형 딜러다.</p>  
<p>아마도 특기는 '암살'.</p>  
<p>공교롭게도 자신의 특기와 동일했다.</p>  
<p>하지만 놈은 재각성을 한 지 얼마 안 됐다.</p>  
<p>경력의 차이는 분명 압도적일 터.</p>  
<p>가진 스킬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리라.</p>  
<p>"선배로서 한 수 가르쳐 주지."</p>  
<p>강태식이 허리춤에서 나이프를 꺼내며 E급 헌터에게 조소를 보냈다.</p>  
<p>"이런 것도 할 수 있나?"</p>  
<p>강태식은 '은신' 스킬로 몸을 감추었다.</p>  
<p>그러자 E급 헌터가 크게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.</p>  
<p>놈의 당혹감이 전해져 왔다.</p>  
<p>'당연히 그렇겠지.'</p>  
<p>은신 스킬은 단순히 투명해지는 기술이 아니다.</p>  
<p>모습, 소리, 냄새!</p>  
<p>시전자의 모든 기척을 일순간 사라지게 만드는 스킬!</p>  
<p>그게 바로 은신이었다.</p>  
<p>암살형 헌터들 중에서도 은신 스킬을 쓸 수 있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.</p>  
<p>등급과 관계없이 운이 매우 좋은 이들만 각성 때 은신 스킬을 얻을 수 있었다.</p>  
<p>'속전속결!'</p>  
<p>강태식은 순식간에 E급 헌터의 뒤로 이동했다.</p>  
<p>놈의 등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.</p>  
<p>'끝이다.'</p>  
<p>어려운 싸움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싱거웠다.</p>  
<p>상대가 은신 스킬을 대비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이길 수는 없었을텐데.</p>  
<p>역시나 경험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.</p>  
<p>'죽어라!'</p>  
<p>강태식의 나이프가 E급 헌터의 갈비뼈 아래를 노리고 날카롭게 쇄도했다.</p>  
<p>그러나 그때!</p>  
<p>챙!</p>  
<p>두 개의 단검이 맞부딪치며 불꽃을 튀겼다.</p>  
<p>은신이 풀린 강태식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아니, 어떻게?"</p>  
<p>E급 헌터의 단검이 자신의 단검을 정확히 가로막고 있었다.</p>  
<p>강태식은 놀란 눈빛으로 E급 헌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.</p>  
<p>E급 헌터가 무심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이제 뜨네."</p>  
<p>"뭐... 뭐라고?"</p>  
<p>이해할 수 없는 E급 헌터의 언행에 강태식은 문득 영문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띠링!</p>  
<p>[긴급 퀘스트: 적을 처치하라!]</p>  
<p>'플레이어'에게 살의를 가진 이가 주위에 있습니다. 적을 처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십시오.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.</p>  
<p>처치해야 할 적의 숫자: 1명</p>  
<p>처치한 적의 숫자: 0명</p>  
<p>진우는 긴급 퀘스트 메시지를 확인하고서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'헛수고가 아니었어.'</p>  
<p>혹시 강태식에게 선수를 양보하면 저번 황동석 일당들 때처럼 긴급 퀘스트가 뜨지 않을까 했다.</p>  
<p>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였다.</p>  
<p>강태식이 살의를 보인 순간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괜히 대화를 나누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며 허점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었다.</p>  
<p>'은신을 쓸 줄은 모르지만...'</p>  
<p>사실 처음 강태식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땐 조금 놀라기도 했다. 은신은 매우 보기 드문 스킬이니까.</p>  
<p>하지만 정신을 집중하자 곧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태식의 움직임이 세세하게 느껴졌다.</p>  
<p>높은 감각 스탯의 힘이었다.</p>  
<p>원래는 싸워도 되는 적인가, 아닌가를 가리기 위해 꾸준히 투자한 스탯이었는데 이런 용도도 있었다.</p>  
<p>'운이 좋았다.'</p>  
<p>덕분에 강태식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고 있었다.</p>  
<p>"아니, 어떻게?"</p>  
<p>이제 놈을 처치하기만 하면 추가 퀘스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.</p>  
<p>'기왕 싸울 거라면 받을 건 다 받아야지.'</p>  
<p>턴은 넘어왔다.</p>  
<p>지금부터는 공격의 시간이었다.</p>  
<p>서로 맞댄 단검 두 개가 팽팽히 줄다리기했다.</p>  
<p>힘은 대등했다.</p>  
<p>순간 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.</p>  
<p>'다른 데서 물꼬를 터 볼까?'</p>  
<p>진우의 발이 빠르게 움직여 강태식의 발등을 밟았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"으악!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